

한국과학원 초대원장

李相洙박사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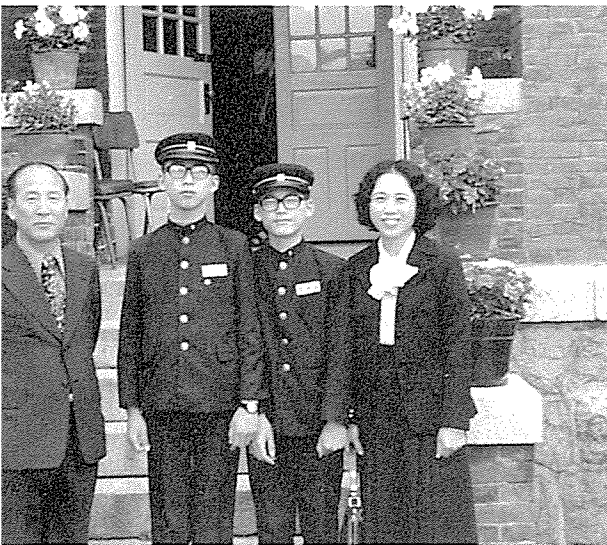
우리나라 물리학의 대가로 한국과학원 초대원장을 지낸
李相洙박사 집안은 강릉측후소장으로 45년간 봉직한 선친의 영향으로
큰 형님 李聖洙박사를 비롯해 조카 2명과 아들 2명 등 3대가
과학외길을 개척하고 있는 「과학名家」이다.

강릉측후소장 지낸 선친 영향받아 형제가족 5명 박사로 과학외길

한국과학원 초대원장을 지낸 李相洙박사는 과학원의 산증인이자 국내에서 몇 안되는 대물리학자중의 한 분이다. 특히 광학계의 대가로 통하는 이상수박사는 강원도 강릉측후소의 소장직을 지내고 45년간이나 이 곳에서 근무한 이대벽(李大闢)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현재 생존해 있다면 우리나라 의학계 대들보역할을 해냈을 것이라고. 이성수박사는 이미 고인이 된지 오래지만 장남인 이명식박사가 삼성의료원 기초의학과에서, 이상수박사의 장남인 이영식박사는 물리학은 아니지만 역시 기초과학인 화학분야에서 대를 잇고 있다.

▼ 李相洙박사(左에서 첫번째) 부부가 두아들 영식(左에서 두번째), 형식과 20년전 찍은 사진.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선 기초과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은 일찍이 깨달은 바 있지만 실제로 이박사가 과학분야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위 큰형님인 이성수(李聖洙)박사라 한다. 이성수박사는 국내에 처음으로 BIOPSY를 도입한 분으로 이성수박사야말로

형 李聖洙박사는 최초의 암연구자

강릉측후소에서 한 우물을 판 이대벽씨의 장남과 국내 물리학계에 길이 남을 이상수박사 또 이들의 대를 이어 새로운 업적을 남길 2세대를 소개한다.

1971년 1월 홍릉의 고황산 중턱, 허허벌판인 이 곳에 한국 최고의 영재를 교육시키고 산업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한국과학원이 건립되었다.故 박정희대통령의 애정어린 과학정책과 더불어 추진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이상수박사는 듣게 되었다.

당시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청장으로 지내던 이박사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국과학원장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1971년 이 때부터 과학기술원과 인연을 맺게된 이박사는 91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과학원과 함께 생활을 해왔다.

이박사는 '과학기술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과학원 건물로 선을 보이는 그 순간까지 벽돌을 손수 치워가며 시멘트가 말라서 제 모습이 되는 것을 밤새워가며 지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어린시절 함흥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자란 이박사는 부친을 따라 강릉측후소에서 기구를 타고 올라가 고층에서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상수박사가 강릉과 같은 벽지에서 물리학이라는 기초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데에는 큰 형님인 이상수박사의 영향이 무척 컸다고 회고한다. 형님인 이상수박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했지만 개업을 하기 보다는 병리학을 선택할 정도로 전형적인 학자타입이었다고 한다. 병리학을 하면서 서울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틈틈히 공부하여 미군이 국내 학생에게 주는 제1회 gario장학금시험에 도전하여 합격, 미국 코넬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딸 정도로 무척 우수한 인재였다고 한다.

이상수박사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국내 인로서는 최초로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BIOPSY를 배웠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42세때 횡장암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때 형님에게서 BIOPSY를 배운 제자들이 형님의 조직을 분석하여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형님을 살려내고자 하는 일념으로 암의 조직 일부를 미국 코

넬대학에 의뢰했는데 형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분석한 결과와 코넬대학에서 검사해서 보내준 분석결과가 똑같았다고 하니 형님이 얼마나 BIOPSY를 공부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쳤는지 알만한 대목이기도 했다.

이처럼 형님인 이상수박사는 뛰어난 수재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장남다운 믿음직스러운 인물이었다고 이박사는 전한다. 한번은 6.25사변중에 식구들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 밖에서 이상수박사를 불러 나가봤더니 대문 밖에는 미국 유학중인 형님이 딱하니 서있더라는 것이다. 전쟁중인 나라와 가족이 걱정이 되어 군의관으로 지원해 고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젓하고 애국적인 형님을 보면서 나도 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몇번이고 다짐을 해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李相洙박사는 英 유학 박사학위

바야흐로 1949년 이박사는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명문인 런던 Imperial Collegy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 곳에서 공부하던 유학시절을 돌이켜보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국내에선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과학분야는 너무도 낙후되어 있어 차근차근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자꾸 막혀서 공부하면서도 몹시 답답함을 느꼈는데 런던대에 가 보니까 교수가 어찌나 강의를 잘해주던지 이상수박사가 평소애 의심하던 부분을 하나 하나 설명해 주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런던대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에 강한지를 알고

또 어떤 나라는 어느 분야가 약한지 비교도 되어서 무척 유익했다고 한다.

또한 수업방식이 이론강의 뿐만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하는 시간이 많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학생들도 꿈쩍하지 않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실험을 하는 장면에선 감동마저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 와서도 실험위주의 수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은 이 때 생긴 것이라 한다.

실제로 이박사는 과학원에서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한테마씩 부여하여 공부를 하게 했고 일일이 불러서 검토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 제자는 전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는 평상시도 무척 검소하여 과학원 설립 당시 과학원 건물이 없어서 창경원 옆에 있는 과학관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할 때 하루는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놓고 사무를 보다가 잠시 사담을 나누었는데 이박사는 공금으로 산 양초를 태우면서 사담을 한다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박사가 검소하다는 것은 여러 일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 대전으로 과학원을 처음 이전했을 때 교수들 앞으로 숙소가 배정됐는데 22평에서 55평까지 몇가지 평형이 있었는데 이박사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평수인 22평을 적어서 냈다고 한다. 연구하는 교수가 큰 평수가 뭐 그리 필요하겠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교수들은 대부분이 55평을 적어내 원장인 이박사가 제일 작은 평수에서 생활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그제서야 두번째로 큰 평수인 45평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홍릉의 과학원을 설립할 때도 가능한 햇빛이 잘드는 곳으로 건물을 지어 최대한으로 관리비를 줄이라고 손수 지

휘했다고 한다.

과학원서 박사 60명 배출

무엇보다도 이박사는 광학계의 대가요, 우리나라 광학을 튼튼히 해준 사람이다. 1960~67년까지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 물리학연구실장과 1967~70년까지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1970~71년까지는 원자력청장을 지냈다. 1971~72년까지는 초대 한국과학원장을 지냈고 또한 이것을 대전의 넓은 터로 이전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학교육 행정가의 역할도 멋지게 수행해 냈다. 1972년부터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도 있었고 1979~81년까지는 한국물리학회 창립시였으며 1989년에는 한국광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이 되어 한국 광학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본래 이박사는 이처럼 감투나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연구가 좋아서 과학원장 1년만에 교수의 자리로 되돌아간 그가 아닌가? 평소 이론적으로 따지길 좋아하고 기초과학을 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난 이박사는 과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1백50편 정도의 비중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이박사 밑에서 배출된 석사가 1백명, 박사가 60명이나 된다. 국내에서 물리학의 토대가 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그가 만약 우리나라에 어려운 시기와 역경이 그처럼 많지만 았았어도 이박사는 노벨상에도 한번 도전해볼만한 인물이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조카 2명도 병원·연구소 근무

이박사가 런던대학에 있을 때 학과장이었던 블랭켓교수가 바로 노벨상 수상

자이기도 했다. 또한 이박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블랭켓교수였다고 한다. 그는 과학자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무척 유명한 분이었지만 늘 겸손하면서도 검소했다고 이박사는 전한다. 오는 8월에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광학회의 제18차 총회에는 외국논문 5백편과 국내논문 1백여편, 총 6백편에 이르는 논문이 발표되고 세계 저명한 레이저, 광학전문가가 많이 참석해 대회를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해 이 행사 준비에 밤낮없이 바쁘다.

이박사의 가족을 보면 이박사의 형님인 이상수박사의 장남인 이영식박사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서울 의과대를 졸업하고 미국 스크립스 인스티튜트대에서 내분비 호르몬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귀국, 현재는 삼성의료원 기초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상수박사의 차남인 이창식도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삼성해양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상수박사의 장남인 이영식씨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 컬럼비아대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경희대 화학과 조교수로 있다.

장남은 美 컬럼비아대 출신

이상수박사와의 인터뷰에 함께 자리한 이영식박사는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조금 쑥스러운 듯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라는 생활이 얼마나 자기희생이 필요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과학자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영식박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과학관련 책을 많이 사주어서 자연스럽게 읽었고 중·고등학교때는 아버지가

직접 번역한 과학문고를 많이 접했지만 이영식박사는 아버지가 전공한 물리학보다는 화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탐독했던 과학서적들이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영식박사는 화학중에서도 물리화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특히 아버지가 전공한 레이저와 광학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 지금은 레이저 화학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영식박사는 본인도 이제 막 대학이란 곳에 몸담고 있지만 각종 행정과 교수생활을 하면서 2백여편의 논문을 낸다는 것은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이력은 아니라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한편 아버지 이상수박사는 매사에 융통성이 있는 이영식박사가 고등학교 다닐때 전교 1등을 놓쳐보지 않은 수재라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더욱 연구에 전념하여 참다운 과학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수박사의 차남인 이형식씨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중에 있다.

현재 대전 과학원에서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늘 지칠줄 모르는 자세로 제자나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이상수박사는 교육이란 독립된 형태로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구 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시간을 뺏기도록 해서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국제광학회의 제18차 총회를 훌륭히 치뤄내야한다는 계획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박사를 보면서 관리자의 자리에서 교수로 원상 복귀했을 때 곧바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를 보면서 연구자에게도 연구자만의 '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허정실(본지 객원기자)